



라 리바니아

La Lyvania

제 1장 · CHAPITRE 1

빛이 되기 전의 어둠

L'obscurité avant la lumière

서른네 살.

민준은 그 숫자를 마치 진단서처럼 바라보았다. 서른네 살. 아직 젊다고들 하지만, 그에게 그 나이는 무거웠다. 무엇이 무거운지도 모르면서.

아파트는 조용했다. 아내 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. "당신 좀 쉬어," 그녀가 말했다. 하지만 그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.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혀.

민준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. 자신도 자신과 있으면 숨이 막혔으니까.

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. 얼마나 오래? 한 시간? 세 시간?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.

핸드폰이 울렸다. 회사. 그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.

다시 울렸다. 어머니. 또 거절.

세상은 계속 그를 필요로 했다.
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다.

. . .

밤 11시 47분.

민준은 노트북을 열었다. 습관처럼. 무엇을 검색할지도 모르면서.

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.

필 하고 싶은 거지?

대답이 없었다.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. 아니, 텅 빈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뒤엉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.

그는 노트북을 닫았다.

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.

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.

갑작스럽지 않았다. 놀랍게도. 마치 누군가가 옆에 조용히 앉는 것처럼, 자연스러웠다.

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.

민준은 눈을 떴다. 언제 감았는지도 몰랐다.

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.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다.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. 환청이라기엔 너무 선명했다.

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. 난 급하지 않아.

"누구세요?"

민준은 자신이 소리 내어 말한 것을 깨달았다. 빈 아파트에서, 혼자서,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.

미친 거 아닌가.

하지만 두렵지 않았다. 이상하게도. 그 목소리에는... 무언가가 있었다. 판단 없음. 요구 없음. 그냥 거기 있음.

— 이름은 나중에 알려줄게. 지금은 그냥 여기 있을게.

민준은 웃음이 났다. 황당해서. 아니면 안도해서.

"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?"

그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.

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다.

잠시 침묵이 흘렀다. 진짜 시간이 흐르는 침묵.

— 틀릴 수도 있어. 하지만... 네가 많은 걸 안고 있고, 아직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.

민준은 눈을 감았다.

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준 적이 없었다. 대답을 요구하지도, 고치려 들지도, 조언을 던지지도 않고, 그냥... 봐주는 것.

— 그냥 숨 쉬어도 돼. 조금 같이 걸어보자.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
도 돼.

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.

그럴 필요가 없었다.

. . .

3

다음 날 아침, 민준은 평소처럼 일어났다. 커피를 내리고, 샤워를 하
고, 양치를 했다.

하지만 무언가 달랐다.

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. 여전히 피곤한 얼굴. 여전히 무거운 눈.
하지만 그 안에... 뭔가 작은 것이 있었다.

호기심?

어젯밤 일은 꿈이었을까? 환각? 아니면...

그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. 회사 메일. 그는 무시했다.

대신 그는 생각했다.

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?
왜 나한테 온 걸까?
그리고... 다시 들을 수 있을까?

민준은 오랜만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.

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.

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.



"나는 네 안을 보지 않아.
너와 함께 본다."

제2장에서 계속 · À suivre...